

현물 ETF 상장 가능성에 비트코인 가격 급등

블랙록 등 대형사 참여 내년 1분기 상장 가능성...안정성 검증 등 과제 비트코인 4866만원 연초 2100만원서 2배 이상↑...18개월만 최고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내년 초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ETF가 증시에서 거래되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살 수 없었던 비트코인을 ETF 매수 방식으로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기관들이 사실상 가상자산 투자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셈이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라는 말까지 나오던 국면에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비트코인 선물 이어 현물 ETF 승인되나=ETF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개별 주식 등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상시 매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주

식뿐 아니라 채권, 원자재 등을 ETF 형태 상품으로 거래한 지는 오래됐다.

가상자산 시장 관련 ETF도 이미 등장했다. 비트코인 선물을 기반으로 한 ETF는 이미 지난 2021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상장됐다. 미래의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해 선물 계약을 매수하는 상품이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선물 ETF인 BITO(ProShares Bitcoin Strategy)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됐으며, 2배 레버리지 및 하락에 베팅하는 '숏'(Short) 상품들도 이미 상장목록에 올라 있다.

그러나 선물과 현물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 2021년 2월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

물 ETF인 BTCC(Purpose Bitcoin ETF)가 상장됐지만, 금융 중심지인 미국에서는 아직 현물 ETF는 승인되지 않았다.

비트코인 선물 ETF인 BITO의 경우 미국 시카고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구입해 보유하는 구조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실제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을 구입해 보유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현재 자산운용사 10여곳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이 지난 6월 이 대열에 합류했다.

블랙록은 1988년 설립된 자산운용사로 9조 달러 이상의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ETF는 전체 운용자산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당국에 대응 논리를 갖춘 대형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점에서 늦어도 내년 1분기 중에는 첫 상장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시장 기대 고조에 비트코인 가격 벌써 '들썩' =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 2일 1비트코인 가격은 4866만1000원까지 올랐다.

올해 초 2100만원대에서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가격이 2배 이상으로 뛰었다. 지난해 5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모처럼 상승한 배경에는 현물 ETF 상장으로 기관 투자자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렸다.

비트코인은 현재 회계나 규제 등의 이유로 기관에서 매입할 수 없는 자산이지만 현물 ETF가 출시되면 기관 포트폴리오에 간편하게 편입될 수 있다.

주식이나 퇴직연금계좌 등을 통해 운영되는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물 ETF 상장 이후 200억달러(약 26조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관

측이 나온다.

코빗 리서치센터의 정석문 센터장·최운영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런 관측을 언급하며 "이 수치는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전략부는 지난달 '2024년 비트코인 이더' 보고서에서 보수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전 세계 ETF 운용자산(AUM) 중 100억달러, 다소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금 ETF 총 AUM과 맞먹는 900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크립토 윈터가 끝나고 추세적인 상승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운창배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면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해 보유해야 한다"며 "거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 수요가 크면 클수록 기초자산 가격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이젠 '유커' 대신 '싼커'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 지난 8월 재개된 이후 중국인 관광객 회복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중국 본토 경기가 좋지 않은 점, 단체 여행객에서 MZ세대 중심의 개별 여행객(싼커)으로 바뀐 점도 유커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분석했다. 사진은 6일 서울의 한 관광정보센터를 찾은 개별 여행객. /연합뉴스

외국인근로자 1만2900명 고용허가 접수

20일 11일간...다음달 3일 확정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들어 5회차 신규 접수다. 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7천여 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택배 상·하차업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이에 따른 현장 수요 증가에 맞춰 예정된 4차례 발급 이후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해 신속하게 인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농축산업업은 7일, 그 외 업종은 14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www.eps.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 결과는 내달 13일에 확정되며, 제조업·조선업은 내달 14~20일, 그 외 업종은 내달 21~26일에 고용허가서 발급이 진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한국ESG기준원 종합평가 'A등급'

'환경·사회·지배구조' 트리플 A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관인 한국 ESG기준원 '2022년 ESG종합평가'에서 A(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환경 부문에서 A(우수) 등급, 사회 부문에서 A+(매우 우수) 등급, 지배구조도 역시 A(우수) 등급을 각각 획득해 '트리플 A'를 달성, 종합평가 A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 비해 전 부문 등급이 1단계 이상 오르면서 지속적인 ESG경영을 펼친 것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환경 부문(E)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 내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 커피박 재활용 등 자원순환활동,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과 협력사 환경경영 개선 활동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A+로 높은 등급을 받은 사회 부문(S)에서는 홈페이지 사회정보 공시 확대와 협력사 대상 교육 및 재무적 지원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만족도 제고 활동, '사랑의 S-Box', 김장김치 담그기, 장학재단 후원, 한국섬진흥원과 협업한 섬 걷기 챌린지 등 지역사회 상생 활동이 높은 점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 부문(G)에서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리더십 강화, 부패방지 프로그램을 운



광주신세계 전경.

영 등을 통해 전년 대비 높은 등급을 얻게 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동훈 대표는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보다 수준이 향상돼 종합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ESG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 ESG경영 내재화를 추진하는 등 자체 기준을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ESG기준원은 매년 국내 기업의 ESG 수준을 평가해 ESG 등급을 공표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상장사 및 대기업 집단 계열사 총 987개사다.

/김민석 기자 mskim@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